한국음악사의 새 지평 연 탐구성과

깊은 역사인식 바탕… 새로운 음악사로 제시해 독창성 돋보여

송방송
영남대 교수·음악사학

한국근대음악사를 저술한다는 것은 음악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연구하는 음악사학(historical musicology) 분야의 음악학자들에게는 자신의 학문적 결실을 통사 형식으로 추수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근대음악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두 분야에 관련된 수많은 음악문헌과 자료들을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음악학계의 연구성과를 탐험하듯이 점검하고 검토해야 하는 힘든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간한 노동은 교수의 《한국근대음악사》 제1권을 읽으면서 엄청난 분량의 1차 사료에 의거한 저자의 학문적 의욕과 열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청난 열정으로 1차 사료 모아

한국음악사의 저술은 전통음악 쪽의 경우 이혜구·장사훈·성경린 공저의 《국악사》(1965)에서 시작하여 장사훈의 《한국음악사》(1976)에 이어 송방송의 《한국음악통사》(1984)가 있으며, 서양음악 쪽의 경우에는 이유선의 《한국양악 80년사》(1968) 및 그 개정증보판 《한국양악 100년사》(1985)가 있다. 이런 기존 연구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의식과 시각 그리고 참신한 체제로 다양한 저술이 나옴으로써 한국음악사 이해를 한 단계 심화시켜야 할 시점에서 이 역저가 나왔으므로, 《한국근대음악사》 제1권의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

1960년부터 1910년까지 반세기의 근대음악사를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은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한국음악의 역사인식과 시대구분론이 다루어졌고, 근대음악사의 전기 전개에 대한 개관이 제2장에서 취급됐는데, 근대음악사의 전기는 네 시기로 구분되었다. 3장에서 다루어진 제1기는 1860년부터 1876년까지 16년의 기간을 서술했고, 제2기(1876~1894)의 음악사는 제4장에서 취급되었으며, 제3기(1894~1904)의 음악사는 제5장에서 취급되었다.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의 제4기는 제6장과 제7장에서 상하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근대음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저자의 역사인식은 제1장 1절 : '한국음악의 역사인식'에서 잘 서술되었다. 음악사가 재료·사회·표현을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형성됐으므로 그 접근도 전일적(全一的) 접근(holistic approach)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56쪽) 하면, 61쪽에서는 음악사가 형식사나 양식사 또는 장르사에 머물 수 없고, 인간-음악-사회와 민족-음악-세계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또 당대마다 드러내려고 했던 시대정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62쪽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역사를 인간음악사이자 민족음악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참신한 역사인식을 대변해줌은 물론이고, 또한 음악사회학적 접근(musico-sociological approach)의 모범적 연구성과임을 드러내준다.

> **광복50주년에 선보인 이 책은 한국근대사의 깊은 역사인식으로 탐구한 연구성과로, 오늘날 음악문제의 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1860년부터 1910년까지 반세기 근대음악사를 인간음악사이자 민족음악사로 접근하고 있는 저자의 역사인식은 한국음악사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음악사회학적 접근의 모범

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역사서에서 시대구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듯이, 저자도 시대구분 문제를 65-66쪽에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의 진행성격인 인간화와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과제를 중심에 놓고 저자는 고대음악사(고조선-삼국시대)·중세음악사(삼국통일-19세기 중엽)·근대음악사(1860-1945)·현대음악사(해방 이후-현재)의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구분의 기준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앞으로 한국문화사적 관점에서 좀더 다양하게 공론화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특징적이고 독창적인 장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이 책의 독창성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음악사료와 화상학(iconography)자료에 의해서 드러난다. 《총어청등록》·《친군별영등록》·《친군우영도안》 등과 같은 문헌자료, 《경성신보》·《대한매일신보》·《독립신문》·《황성신문》 등의 구한말 신문자료, 《고금잡가편》(1915)·《무쌍신구잡가》(1916)·《신편창가집》(1914) 같은 음악자료, 그리고 김홍도의 부벽노연회도·신육복의 쌍검대무도·진연반차도같은 화상자료를 포함한 1차자료가 그 실례이다.

그러나 통사류의 개설서를 집필할 때 저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미발굴의 자료를 많이 나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음악사료에 의거한 저자의 역사해석, 곧 사실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서 서술하는 작업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의 역사적 의미가 오늘의 음악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즉 역사교훈을 제공해주기 때문이고 또한 음악사학의 궁극적 목적이 과거의 전통은 결코 죽어버린 박제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사학의 연구방향 제시

노교수의 《한국근대음악사》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다양한 문제영역과 시대사라는 두가지 음악사의 주제를 하나의 체제 속에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사 서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본문의 서술과정에서 제시한 그 많은 음악사료와 보충설명 등이 개론서라기보다는 자료집 또는 논문집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단점을 지녔음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본문 속에 간간이 비교적 자세하게 자료의 출처를 밝힌 것이나 지금까지 연구업적을 참고문헌에 집대성한 것 등은 동학자나 후학자들에게 한국근대음악사 연구를 위한 좋은 안내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 책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보면 몇가지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서술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보건대, 저자가 본문장과 부연설명을 활자의 크기로만 다르게 표시한 실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622쪽에서 장음계와 단음계를 설명하면서 이자와 슈지(伊澤修二)의 《洋樂事始》 및 다른 책에서 인용한 부연설명을 622-24쪽에 걸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이 문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부연설명은 마땅히 각주로 처리되어야 하는 바, 이와 비슷한 실례가 359쪽·402쪽·467쪽·475쪽·487-90쪽·534쪽 등에서 발견된다.

다음으로 학술서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검증성(verification)의 문제에 대하여 점검해보려고 한다. 노교수 논지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기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의 출처가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검증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표시가 여러곳에서 생략됐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어렵게 되었다. 가령 132-34쪽에 제시된 변강쇠타령 사설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인용문이 어느 책에 의거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실례가 146-49쪽에 제시된 진도씻김굿 중 〈초가망석〉거리, 166쪽 1988년 이정란이 채보한 안당, 167쪽의 고사소리(이소라 채보), 184-85쪽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등이다.

이러한 옥에 티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음악사》 제1권은 한국음악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노교수의 역저는 1990년대 한국음악사의 연구업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적 성과의 하나로서 한국음악사학(Korean historico-musicology)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외국에서 서양음악학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젊은 음악학박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노교수의 역저가 방향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역저에 이어서 1910년-1945년을 다룰 《한국근대음악사》 제2권 및 《한국현대음악사》 제1권(1945-1950)과 제2권(1950-1990)이 하루 빨리 완간되기를 기대한다. ❖

한길사 / A5신 / 814면 / 30,000원